

전두환씨 형사재판 또 불출석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27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법원은 다음 재판을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한 뒤 강제구인에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법정등 201호 법정에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에게 출석의무가 부여된 재판이었지만 전 씨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인만

전 씨 측 “감기·고열로 외출 불가능”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

자리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27일에도 출석의무가 있었지만, 알츠하이머 등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선 재판장은 먼저 전 씨를 호명한 뒤 불출석을 확인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 출석이 이뤄지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방청하러 오신 광주시민께도 송구스럽다. 일부 언론에서 전

씨가 고의로 출석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했지만 이번 기일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참작해 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재판을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이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전 씨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다”며 구인

영장 발부 판단을 다시하건 해 달라고 말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괴롭힘당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주춘경 기자

목포 전통시장 옆 상가불...점포 13개 태워

목포시의 한 전통시장 옆 식당가에서 불이 나 점포 13개가 불에 탔다. 7일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9분께 산정동 신중양시장과 인접한 식당가에서 불이 났다.

불은 점포 39개 중 식당 등 13개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난 식당가는 회집과 국밥집 등 일명 먹자골목으로 상가들이 밀집돼 피해를 키웠다.

하지만 140여 개의 점포가 모여있고 5m 가량의 통로와 상부 아케일로 연결된 신중양시장으로 번지지 않아 대형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소방과 경찰은 화재 진압을 위해 인력 122명과 소방장비 28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가 주변 통로에서 불길기 시작했다”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뺑소니 사고 내고 도주 60대 5시간만에 검거

전북 김제경찰서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A(6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20분께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 위에 쓰러진 B(53)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범행 5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도로에 사람이 쓰러진 줄 몰랐다”면서 “사람을 친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조처했을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흥기 난동 60대, 경찰이 테이저건 쏘 제압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문을 잠근 채 흥기로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 남성을 제압했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7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사설구급대원이 보호자와 함께 60대 남성인 A씨를 보호시설로 옮기려고 하던 중 A씨가 흥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방검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채 현장으로 출동했고, A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대치했다.

A씨는 가족 등이 실투에 나섰지만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돌발상황에 대비해 아파트 1층 지상에 에어매트 설치 등 요청했다.

에어매트가 설치되자 경찰은 A씨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흥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A씨에게 테이저건 쏘 제압했고, 이 소동은 1시간여 만인 낮 12시 5분께 인명피해 없이 종료됐다.

A씨는 1년 동안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압된 A씨는 보호자와 함께 경남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버지 살해 30대, 도주 중 노부부 살해

충남 서천에서 60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인천에서 80대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31)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 B(66)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경찰에 잡혀진 뒤 조사 과정에서 지난 5일 인천에서도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충남경찰청은 전날 인천경찰청을 통해 A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라에서 C(80)씨와 D(81·여)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 노부부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부산으로 달아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마스크 쓰고 경례하는 입영장병들 육군훈련소 새해 첫 입영 행사가 7일 오후 충남 논산훈련소 입소대에서 열려 입영 장병들이 마스크를 쓰고 경례하고 있다. 이날 훈련소는 추위에 장병들이 감기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나누어 주었다.

5·18 단체 “전두환, 용서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길”

5·18 단체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7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 형사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는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8월27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법원은 다음 재판을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한 뒤 강제구인에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월 단체는 “전두환은 광주시민을 학살했고, 5.18 진상 규명과 책인자 처벌을 요구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을 감옥에 가렸다. 1980년대를 독재와 암흑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는 더이상 전씨에게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법률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

사는 회견 직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집행의 문제만 남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 기소가 2017년 5월3일이다. 전씨는 (재판을 미루기 위한)모든 편법을 써온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는 2번의 무단 불출석이지만 나머지 태도에 비춰보면 진정성 있게 재판에 임할 태도가 없다는 사법부 시각을 반영해 (재판부가)강제소환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 이 원칙이 지켜질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남규 기자

한유총 광주 사업유치원

천막농성장 자진 철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광주지역 사업유치원 원장들이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왔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자진 철수했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사업유치원들이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교육청에서 시작했던 천막농성을 지난 4일 중단했다. 천막농성장도 13일 만에 철거됐다.

한유총 소속 사업유치원들은 회계비리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자 강압적이라며 천막농성장을 차리고 집단농동에 돌입했다.

사업유치원 관계자 40~50명은 매일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 교육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감추려는 것이다. 이들의 요구를 응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꺾지도 하지 않자 사업유치원들이 제시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마땅치 않게 됐다.

특히 여론까지 우호적이지 않자 장기 농성으로 갈 수 있는 내부 동력도 상실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농성 도중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이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것은 오히려 여론만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지난해 한유총에서 탈퇴해 새로 설립한 ‘한국사업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중재에 나섰다.

한사협이 협상 전면에 나서면서 퇴로를 찾은 한유총 사업유치원 원장들은 천막농성장을 자진 철거했다. 조인호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